

SB SUNBO NEWS



SUNSHINE 2027 | 친환경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주요 소식



SB선보, '코마린 2025(KORMARINE 2025)' 참가

SB선보(주)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코마린 2025(KORMARINE 2025)'에 참가해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과 지속 가능성 비전을 공유했다.

24회째를 맞는 코마린 전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조선해양 전문 전시회이다. 1980년 처음 개최된 이후 격년제로 개최되며 오늘날의 해양 산업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시회로 성장했으며, 독일 SMM, 노르웨이 NOR-SHIPING, 중국 MARINTEC CHINA와 함께 세계 4대 조선해양 전시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올해 행사는 국내 빅3 조선사와 SB선보를 비롯한 조선기자재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40개국의 업체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SB선보는 이번 전시회에서 Regasification System, SUN-COM(BOG Compressor Skid), SUN-RS(Recondensing System), Wind-Challenger, CHS, OCCS(RPB, Cryogenic) 등 자사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전시 부스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 해양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선도 기술력을 국내외 고객사에 직접 선보이며, 기술 협력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폭넓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린 부대행사에서는 회사 통합 이후의 새로운 비전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고, 카본밸류 임한권 박사가 진행한 'Advanced OCCS Session - RPB' 기술 세션을 통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SB선보 최금식 회장은 "조선기자재산업은 부산의 효자 산업으로, 이번 전시회로 더욱 점유율을 높이고 조선기자재가 부산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를 전했다.



"차이를 만들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2025 팀장 워크숍

회사 소식

2025 팀장 워크숍 -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하나되다

2025년 10월 18일, 명지 신라스테이에서 '직원 간 갈등 예방과 소통 중심 리더십 강화'라는 목표 아래 'SB선보 팀장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금식 회장과 박두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6명, 그리고 전국 사업장 42명의 팀장 등 총 48명이 참석해 조직의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소통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팀 내 갈등의 원인 분석과 팀 내·팀 간 소통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각 조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리더십 전략과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키워드는 바로 "신뢰, 명확성, 공감, 피드백, 협업"이었다.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 팀장들이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핵심 키워드

- ✓ **신뢰** 숨기지 않고 문제를 공유할 때 진짜 해결이 시작된다.
- ✓ **명확성** 애매한 지시는 혼란을 낳고, 명확한 피드백이 문화를 만든다.
- ✓ **공감**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리더십.
- ✓ **피드백** 즉각적·구체적 피드백이 조직의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
- ✓ **협업** 팀 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해결하는 태도.

A조

"세대의 차이를 넘어, 협업의 힘으로"

핵심 주제 업무 과중과 세대 간 소통 문제를 조직 효율화와 협업 문화로 해결한 사례

A조는 팀 내 갈등 사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국책과제 수행 중 특정 인력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우수 인력이 퇴사한 사례, 신규 직원 유입 이후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사례였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었고, 결국 피로 누적으로 퇴사까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업무분장을 전문화하고, 분야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였다. 육아 휴직·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일·가정 양립 문제도 해결하였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20대 신규 직원들이 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 보고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면 보고, 중간 공유, 사전 발표 연습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였고, 점차 협업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인상 깊은 메시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개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기술기획 성경현 수석
미래연구1팀 최재호 책임
미래연구2팀 김지상 책임
기계의장개발 박귀남 수석
기계/의장 개발1팀 홍성권 책임
기계/의장 개발2팀 강승우 책임
전계장 개발1팀 김진환 책임



B조

"갈등은 피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핵심 주제 감정의 문제를 제도로 풀어낸 실용적 리더십

B조는 '팀 내 갈등의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메신저에서의 짧은 표현으로 인한 오해, 업무분장 불균형, 성격 차이, 인사사고와 갈등 등 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특히 메신저 소통 문제의 경우, '감사+요청+이유' 3요소를 포함한 메시지 템플릿을 도입하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개선했다. 또한 인사 평가와 관련된 불만은 평가 기준과 피드백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높였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에는 '거울 배치(유사 성향 인원 간 협업)'와 업무 표준화를 통해 대응했고, 업무분장 문제는 개별 간담회를 통한 맞춤형 업무 재조정으로 해결했다.

인상 깊은 메시지

"서로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팀이 진짜 강한 팀입니다."

설계3팀 고종현 책임
설계4팀 강영한 책임
설계운영팀 박문염 책임
설계5팀 윤치호 책임
영업1팀 문해기 책임
영업2팀 김희태 책임
설계2팀 이현우 책임



C조

"소통이 곧 품질이다"

핵심 주제 생산·품질·시운전 간 협업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조직문화 개선

C조는 생산·품질·시운전·전계장팀 간의 실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주요 갈등은 ▲고객사 물류 담당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혼선 ▲고객사 동시 방문 시 품질검사 대응 문제 ▲해외 출장 중 신규 입사자 업무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트러블 등으로, 대부분 업무 로드 불균형과 커뮤니케이션 부재에서 비롯됐다. 이에 팀은 업무 재분배, TBM 미팅(작업 전 안전·업무 점검 회의) 강화, 정기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했다. 또한 신규 관리자 교육 강화 및 인성 중심 리더십을 도입해 팀원 간 상하 관계의 긴장 완화와 공감대 형성에도 성과를 냈다.

인상 깊은 메시지

"업무보다 중요한 건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전계장시운전 노진철 수석
생산관리1팀 한승진 책임
생산관리2팀 이경화 책임
전계장/시운전팀 권진영 책임
품질1팀 이현수 책임
플랜트품질팀 박상계 책임
다대생산총괄 이창현 수석



D조

"칭찬은 문화를 만들고, 피드백은 성장을 만든다"

핵심 주제 중간 리더십의 딜레마를 넘어, 소통 중심의 코칭형 리더십으로

D조는 팀장들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4대 리더십 딜레마를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했다. 각각 소통방식, 업무 조율, 역할 정렬, 피드백 방식이다.

이에 "기강은 질서를 만들지만, 칭찬은 문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로 발표를 시작했다. 팀장은 더 이상 지시자가 아니라 '코칭형 리더'로서 팀원의 성장과 몰입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왜 이 사업을 하는가'를 구성원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관찰-이유-제안'의 3단계 피드백 구조는 D조가 제시한 실질적 리더십 해법이었다.

인상 깊은 메시지

"칭찬은 지시보다 오래간다. 팀장은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를 써야 한다."

PM팀 한승목 책임
기획팀 장철민 책임
전산팀 안정빈 책임
HSE기획팀 성광준 책임
ESG소통팀 이세영 수석
총무팀 김정석 책임
사업운영 정현우 수석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E조 "성과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핵심 주제 성과 부진 팀원의 관리와 팀 전체의 책임의식 회복

E조는 업무 성과 부진자 관리와 비정형적 현장 업무의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했다. 일부 담당자가 맡은 업무에서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팀 내 사기 저하·업무 지연·조직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생산현장의 비정형적 업무 특성상 이상적인 '업무 분장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일부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다른 인력은 역할 혼선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팀장은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 점검, 목표 재설정, 성과 면담, 역할 재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이 경험을 통해 '팀원의 기본 태도와 책임감, 협업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면담용 질문 리스트를 활용해 개인의 동기·환경·업무 이해도를 세밀히 점검함으로써 향후 인력 재배치 및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상 깊은 메시지

"팀장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증명된다."



- 구평생산관리팀 진성은 책임
- 품질2팀 박영규 책임
- PCS생산팀 정남철 책임
- 관리팀 권희정 책임
- UNIT생산팀 배승용 책임
- 품질팀 권우현 책임
- 구평생산관리팀 표종원 책임

F조 "현장은 소통으로 움직인다" (호남사업장)

핵심 주제 생산·품질·HSE 간 협업 강화를 통한 현장 커뮤니케이션 혁신

호남사업장은 생산·품질·HSE 각 부문에서 발생한 갈등과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핵심 이슈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시, 세대 간 소통방식의 차이,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 안전의식 간극이었다. 생산팀(대불)은 "알아서 하겠지"식의 관행적 업무지시가 오해와 혼선을 초래함을 지적하고, '업무 관리 템플릿'을 도입해 일장·오너·진행상태를 명확히 공유하는 체계를 정착시켰다.

영암 생산팀은 긴급공정이 잦은 환경 속에서도 "모르면 물어보고, 어렵다면 요청하자"는 심리적 안전 기반의 협업문화를 조성해 세대 간 갈등을 협력의 자산으로 바꾸었다. 품질팀은 인력 축소와 급격한 업무 증가에도 팀장이 직접 현장을 지원하며 필수 검사 및 고객 대응을 유지했고, 내향적인 신입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는 멘토링·역멘토링을 통해 개선했다. HSE팀은 안전 점검에 대한 거부감, 소통 단절, 책임 전가 문제를 '감성적 안전문화'와 '브레인스토밍 중심의 협업회의, 주간 업무보고·업무관리 템플릿'을 통한 체계화로 대응했다.

인상 깊은 메시지

"명확한 지시는 신뢰의 시작이다."



- 호남 HSE팀 김상진 책임
- 의장1팀 김태경 책임
- 의장2팀 양병철 책임
- 호남 품질2팀 이훈 책임
- 호남 품질1팀 서형철 책임
- 영암 생산관리팀 김덕현 책임
- 호남 품질2팀 이현우 책임

최금식 회장 메시지 - "희망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팀장님들은 회사의 '허리'이자 '심장'입니다.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결국 현장을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선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미래, 그것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회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 그리고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리더들의 자세가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역할 하나하나가 바로 선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업을 넘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조선 기자재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선보는 지구의 환경을 바꾸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LNG, 수소, 탄소포집,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곧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희망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조직은 변하지 않고,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기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자"

우리의 사훈은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이 말은 단지 열심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이 사람인지, 프로세스인지, 구조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증상에만 반응하지 말고,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생각하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영업사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철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영업을 창출한다'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면, 그 고객은 우리 대신 영업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시장에 이야기하고, 우리의 품질과 신뢰를 세상에 알립니다. 고객의 지적은 불편한 말이 아니라 스승의 조언입니다. 불만이 아니라 기회의 언어입니다. 고객이 지적할 때, 우리는 그 말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은 단 하나 - '고객의 관점'입니다. (후략)

"사람 중심의 기업, 수평적 문화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술 중심의 회사에서 사람 중심의 회사로, 명령과 보고 중심의 조직에서 소통과 존중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팀장님들입니다.

팀장은 회사의 방향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리더이자, 직원의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다리입니다. 팀장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조직 전체가 변합니다. 수평적인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은 "먼저 듣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후략)

"다기능 인재가 되자 - 배운 것은 모두 내 것"

선보가 꿈꾸는 인재상은 다기능형 인재입니다. "이건 내 일, 저건 내 일"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성장합니다. 배운 것은 모두 내 것이고,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팀장님들은 이러한 '주인정신'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조직의 경계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타 부서의 일이라도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곧 리더십의 깊이를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는 팀장님들 손에 달려 있다"

선보의 오늘은 40년의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40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팀장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직의 허리이자 중심인 팀장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과 태도가 곧 선보의 미래입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으로 문화를 만든다"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의 날개이고, 사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앞으로의 선보는 "조선 기자재 기업"이 아니라 지구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 길의 가장 앞에는 팀장님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보의 문화를 바꾸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상

SB선보(주) 최금식 회장 출산친화기업 표창 수상

SB선보(주)가 10월 24일~2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과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제18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행사'에서 '출산친화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출산친화기업은 근로자의 출산 장려와 임신부 배려를 위해 술선수범한 부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며, SB선보는 부산시 출산·양육 친화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날은 다자녀가정 우대 문화 확산과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8년 지정되었다.

한편, 해당 기념식은 저출생 대응 캠페인 '제2회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 기간 중 열렸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국민이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8년 최초 개최된 해당 행사는 '온 부산이 당신처럼 애지중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의 메시지를 담아 개막식, 전문가 초청 강연·공연,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졌다.



수상

설계7팀 이대현 선임 조선·해양산업 유공자 표창 수상

SB선보(주) 설계7팀 이대현 선임이 10월 21일 '2025년 대불산단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조선·해양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대현 선임은 평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같이 가치 있게 사는 우리'를 구호로 열린 '2025년 대불산단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은 조선업 현장의 내·외국인 노동자와 삼호읍민이 함께 어울려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불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산업단지 관

계자, 삼호읍민 등 1,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문화 공연, 체육행사, 안전 다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승희 군수는 "대불산단은 영암군과 전남 서부권 경제의 핵심"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단을 만들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내 복지

선보인의 화합과 소통을 이어가는 'SB선보 사우회'**Q1. SB선보 사우회는?**

지금의 SB선보 사우회는 2000년 '다선 사우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1대 회장 김동섭 기원, 총무 이경식 기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의 여파로 대내외 활동이 잠시 중단됐었는데, 2023년 '선보 사우회'로 명칭을 변경 후 2대 회장 임우택 상무, 2025년 3대 회장 이현우 책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각 공장 사우회 부회장님들로는 다대공장 장형구 기원, 대대2공장 유완중 소장, 구평공장 장호준 책임, 김해공장 권희정 선임, 감사 최경호 상무, 재무 이명호 선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최근 사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현재 각 공장의 경조사 지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체육대회와 2025년 상반기의 '가족 등반 & 노래자랑' 행사 모두 직원들과 가족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율이 높은 즐거운 행사를 풍성한 경품과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Q3. 매년 진행되는 행사 중 구성원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던 행사는 무엇인가요?

가장 인기가 높았던 행사는 단연 체육대회와 가족 노래자랑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세대 간 소통과 팀워크, 그리고 가족 간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땀 흘리고 응원하며 어울리는 그 순간이 하나의 '선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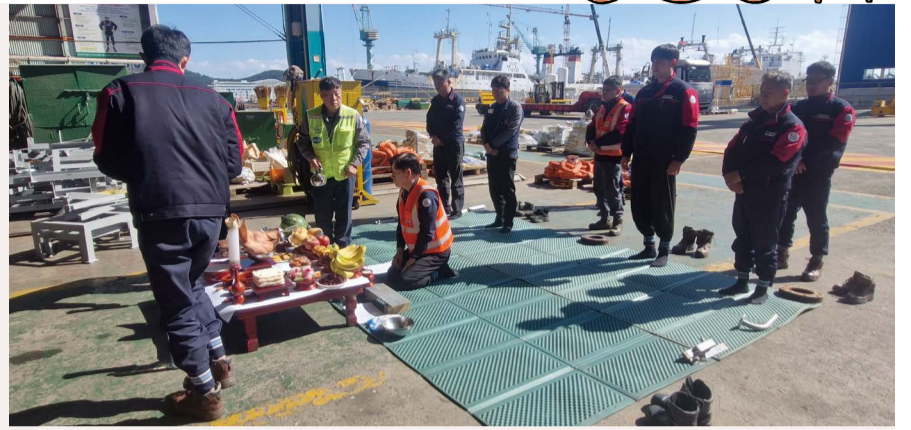
Q4. 사우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가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화합'입니다. 기쁨 떠나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 '선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웃고 울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우회의 정신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전

전 공장 안전기원제 실시



SB선보(주)는 10월 29일 12시부터 1시까지 전 공장(다대1공장, 다대2공장, 구평공장, 김해공장, 영암공장, 대불공장)에서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이번 안전기원제에도 각 공장의 공장장, 생산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HSE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한편 SB선보는 안전문화 개선에 대한 임직원 참여 및 관심 확대를 위해 벽화 제작, 표어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감독자를 임명하는 등 관리자들이 특히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재해 공장 만들기에 애쓰고 있다.



Q5. 사우회 활동이 구성원 간 소통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끼는지.

아직은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행사와 교류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기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소통의 문화'가 뿌리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Q6. 개인적으로 사우회를 통해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행사가 끝난 뒤나 경조사 후에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잘 알지 못했던 타 부서나 타 공장의 구성원들이 "와줘서 고맙웠다", "신경 써줘서 고맙웠다"는 말을 건넬 때,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행사 후에는 몸이 힘들어 하루쯤은 앓아눕기도 하지만, 마음만큼은 늘 뿌듯합니다. (웃음)

Q7.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우회가 회사와 임직원 간의 든든한 가교(架橋)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사우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8. 사우회 구성원 및 선보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행사와 경조사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우회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직원 곁을 지키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위원들은 직책이 아닌 '봉사자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구성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보람입니다. 또한, 본업이 바쁜 가운데서도 묵묵히 함께해주는 사우회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사우회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현우 책임(설계2팀)

회사 소식

추석 연휴 재충전 완료! - 추석 격려 인사의 날 실시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 아침, SB선보는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 인사를 진행했다. 다대1 공장과 다대2공장을 직접 찾은 임원들은 직원들과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덕담을 나누었다.

새해 첫날이나 명절 끝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려 인사를 나누는 것은 SB선보의 오랜 전통이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 기회를 통해 평소 마주하기 힘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인사를 건네고, 직

원들은 따뜻한 인사로 화답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리더가 솔선수범하며 유대감을 다지는 이 같은 전통이 하나의 선보Family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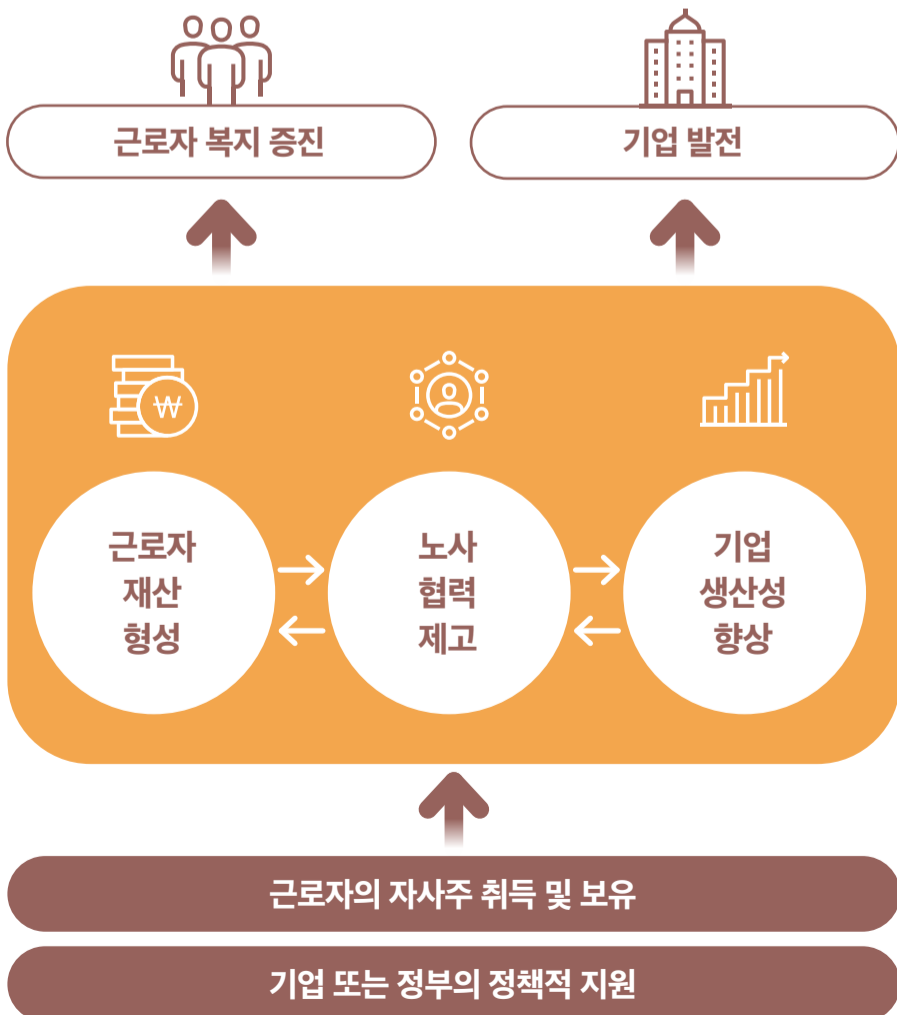
선보 챗봇

우리사주조합이 궁금해?!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제도



우리사주제도의 개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근로자 복지 증진**
 - 주식 보유를 통한 임금소득 외 배당소득
 - 기업발전으로 주식 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
- 노사 협력 제고**
 - 주인 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
 -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노사 협력 강화
 -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 기업 생산성 향상**
 - 주인 의식과 애사심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
 - 향상된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업 발전에 기여





회사 소식

“몸도 마음도 리프레시” - 사하 갈맷길 걷기대회 참가

가을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10월 19일, SB선보는 임직원들과 함께 ‘사하 갈맷길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임직원 가족들이 자유로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하남 중학교를 출발, 해안산책로를 거쳐 다대포해변공원 푸른광장으로 이어지는 코스였다.

이번 갈맷길 걷기대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라 더욱 뜻깊었다. 선보 Family는 깊어지는 가을 정취를 느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료애를 다지기도 했다. 대회 후에는 이벤트 행사와 경품 추첨까지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기를 더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선보Family가 일하는 속에서도 여유를 느끼며 소속감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직원 및 가족 참여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회사 소식

신규입사자 킥오프 미팅 실시

SB선보(주)는 11월 12일 본사 옥상 대학교에서 신규입사자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킥오프 미팅은 신규입사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 및 멘토-멘티 매칭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기존 멘토링은 사원 직급만 진행되었던 데 반해, 이번부터는 선임과 책임 직급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본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전 공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2026년 1월까지 진행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입사자들이 선보Family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멘티 (신규입사자)	입사일자	멘토	멘티 (신규입사자)	입사일자	멘토
 호남 HSE팀 정동현 선임	2025.09.01	소속 호남 HSE팀 김상진 부장	 품질팀 최기영 사원	2025.10.13	소속 품질1팀 문재경 선임
		유관 호남 품질경영 담당 전민재 상무			유관 설계3팀 정동민 선임
 품질2팀 강수현 사원	2025.09.08	소속 품질2팀 이준희 선임	 프로세스 개발1팀 손민현 사원	2025.10.13	소속 프로세스 개발1팀 권영민 선임
		유관 구평생산관리팀 진성은 책임			유관 전계장 개발1팀 이동욱 선임
 김해HSE팀 전채우 책임	2025.09.15	소속 김해공장총괄 임영삼 상무	 설계6팀 박상현 선임	2025.10.13	소속 설계6팀 오창배 책임
		유관 PCS생산팀 정남철 책임			유관 설계5팀 천병철 책임
 설계7팀 김현태 책임	2025.09.22	소속 설계7팀 오세준 책임	 설계3팀 김지홍 선임	2025.11.03	소속 설계3팀 이경진 책임
		유관 호남 품질1팀 박민석 선임			유관 기획팀 장철민 책임

회사소식

‘선보다움’을 담아 - 새로운 설계센터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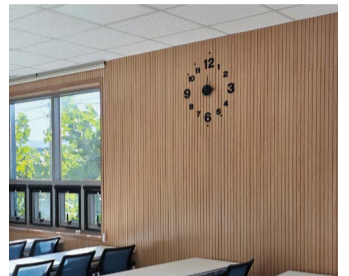
지난 6월 19일, SB선보 설계본부가 새롭게 단장한 설계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새 공간에는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설계본부 특유의 감각이 곳곳에 담겨 있다. 이번 설계센터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업무 효율과 팀워크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동료의 시선으로 고민하고, 함께 일하는 공간을 직접 만들어낸 설계부의 이야기는 SB선보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를 잘 보여준다.

설계본부 **인진태** 전무설계본부 **최우호** 수석**Sailing Green 포인트 디자인**

SB선보의 새로운 슬로건 “Sailing Green”을 시각화한 연두색 물결 모티프가 사무실 곳곳에!

**공간 분위기를 살린 대형 아트웍**

사무실 중간중간에 설치된 대형 예술 작품들이 공간을 한층 밝고 산뜻하게 만들어줘요.

**교육장 시계 포인트**

감각적인 디자인의 시계로 세련된 공간 분위기 UP!

**스마트라운지**

직원들의 휴식 공간
스마트라운지

**SB선보 핵심 가치 포스터**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SB선보의 새로운 핵심 가치 대형 포스터. 출근하면서 매일 한 번씩 보게 된다고 합니다!

Mini Interview 설계센터 인테리어 기획자 **최우호** 수석**Q1. 설계센터 디자인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동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파티션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며 일하는 설계팀 특성상 ‘눈의 피로를 줄이면서 칙칙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색상으로 파티션을 구성하고 안정감을 주되 답답하지 않은 공간을 만들도록 했죠. 또 하나는 블라인드입니다. 사무실 채광이 좋지만, 업무 특성상 모니터를 계속 봐야 해서 햇빛이 강하면 업무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가 필요한데, 설계부 여직원님들의 도움으로 밝고 세련된 색상으로 결정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Q2.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요?

교육장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교육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젠가 주말을 이용해 영화 상영이나 닌텐도 게임 대회 같은 레저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내년엔 열리는 월드컵 경기도 대형 스크린으로 응원하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Q3. 새 설계센터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화장실이에요. 기존에는 화장실이 별도의 공간에 있어서 다소 불편했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동도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이 사무실 내부에 있어서 너무 쾌적합니다. 동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행복하고,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

Q4. 향후 추가적인 계획이나 바램은요?

“신축 아파트에 살면 다음에도 신축만 찾게 된다”는 말처럼 이번에 신축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이제 더 나은 공간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설계 업무를 더 열심히 해서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싶어요. 특히 이번 이전을 위해 정말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체 가구를 새로 모두 바꾸는 등 신규 사무실 이전을 위해 최금식 회장님, 박두선 부회장님, 서재욱 부사장님, 인진태 전무님, 장호길 상무님, 그리고 우리 회사 총무팀의 김정석 책임, 김수환 선임 그리고 ESG소통팀 이수지 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계부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공헌

배식 봉사로 온정을 나누다

SB선보 봉사단은 10월 14일 오전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최경호 상무(사업 품질 기획 담당)를 비롯해 1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배식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봉사단원들은 식사 준비부터 대접뿐 아니라 경로식당의 위생 점검과 정리 정돈에도 신경 쓰며 세심하게 일손을 보냈다. 물운대복지관 측은 “늘 그렇듯 친절함 응대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선보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시간이었다”며 “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SB선보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익을 실천해 온 SB선보는 앞으로도 지역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하며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회사소식

잡페스티벌 참여

SB선보는 10월 27일 벅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열린 2025 부산 잡(JOB)페스티벌에 참여해 구인 및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시와 BNK부산은행,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재를 필요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을 비롯해 채용관, 특별관, 홍보관, 취업컨설팅관, 취업특강 및 기업설명회, 부대행사, 현장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박람회로 마련되었다. SB선보는 공공기관 10곳 등 총 215개사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설계·시운전·연구소 부문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부산시 선정 ‘청광(청년이 쫓는)기업’으로 재인증 받은 바 있는 SB선보는 동종 업계 기준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등으로 지역 인재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 '스피치UP 전달력이 경쟁력이다' 아침특강 진행

SB선보는 10월 22일과 29일 구평공장 교육장과 다대1공장에서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아침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스피치 UP! 전달력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임직원들의 스피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22일(구평) 강의는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노주원 강사가, 10월 29일(다대1) 강의는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신예숙 강사가 각각 맡아 ▲시시대 스피치의 중요성 ▲나

를 표현하는 말의 태도 ▲논리적인 말하기 비법 ▲명확하고 효과적인 말하기 스킬 등을 설명했다.

특강에 참여한 선보Family는 업무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 스피치 전달력 향상 팁을 직접 시연해 보며 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



- 1 **목표 설정과 예상 청중 분석** : 청중이 누구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
- 2 **핵심 메시지 결정** : 발표의 핵심 메시지를 미리 정하고, 세부 내용 구성(문제제기-원인-해결방안)
- 3 **세부자료 수집** :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얻은 통계, 인용구, 사례 활용하여 내용 뒷받침
- 4 **구조 설계**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의 구조 설계 (서론, 본론, 결론 ; 본론은 3가지 포인트로)



효과적 피드백의 3가지 조건



- 1 **사람이 아닌 사실에 기반**
객관적 묘사는 행위자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덜 받는다.
- 2 **구체적 언급**
ex)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야. 좀 더 보완하면 좋겠는데?
- 3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
ex) 회의 시간에 00님이 의견을 내지 않으니 다양한 접근이 어려운데? 다음엔 더 적극적 자세 부탁해.

선보 맛집 전국 방방곡곡! SB선보 대표 미식가의 맛집 List

이창면 수석(다대공장)이 부산과 경남, 제주를 아우르는 지역의 다양한 맛집을 소개합니다. 미식가의 입맛을 따라가 볼까요?



이창면 수석(다대공장)



장원쌈밥
부산 영도구
중리로 46-9



아키토리 해공
부산 수영구
민락본동로 19번길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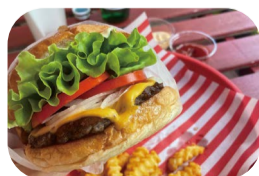
톤쇼우 남포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24번길 9



나라(스키야키, 와규)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67번길 14-1



풍로 제주신화월드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98



라이프 버거
부산 중구
중앙대로 49번길 7



중앙모밀
부산 중구
중앙대로 49번길 9-1



더플
경남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51번길 50



윤스키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168



몽돌 제주
제주 제주시
서광로 32길 40-1



백설대학
부산 영도구
동삼로 28번길 6

“팀워크는 개인의 총합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선보Family

25년 한결같이 선보와 함께 걷다 - 장호길 상무

스물다섯 해라는 시간 동안 한 회사와 함께 걸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회사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때로는 현장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온 이들이 있기에 지금의 SB선보가 존재합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 미래연구소 장호길 상무는 선보의 기술력과 철학을 현장에서 체화해온 대표적인 장기근속자이자, 동료들 사이에서 '선보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회사 곳곳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분입니다.



장호길 상무
미래연구소(입사 25주년)

SB선보에 어떻게 입사하게 되셨나요?

타 지역에서 분체, 재생, 석유 플랜트 등 공정개선 및 설계 업무를 진행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이직을 고민하던 중, 고향인 부산에서 직장을 찾았습니다. D조선에서 근무한 경험 덕분에 조선소 관련 업무에 눈이 갔고, 그렇게 선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사 후 Unit 설계 업무를 맡았는데, 당시 제 사수는 지금도 함께 근무 중인 임우택 상무님과 장호신 상무님이었습니다. 두 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치의 흐트러짐으로 인해, 오작과 함께 SB선보에서의 제 서사가 시작됐는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입사 초기에는 설계부에서 AutoCAD로 2D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주 물량을 소화하던 시절이라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죠. 자정 무렵이면 회장님께서 직접 통닭을 사 오셔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워 주셨고, 다음 날 아침엔 설계부로 오셔서 지갑 속 용돈을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함께 사우나에 가서 피로를 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후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며 제품 개발과 연구 업무로 확장되었고, 여러 국책과제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Stern Tube Unit, WTS 등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제 인생의 잊지 못할 첫 프로젝트는 D4437 C.W UNIT이었습니다. 해수라인 350A에서 오작이 발생했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고무 라이닝이 된 피스 문제였습니다. 생애 첫 오작이라 더 아찔했죠. 당시 자재를 담당하신 김동섭 기원님과 생산팀의 박영효 사원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이메일, SNS ID에는 'OZAC(오작)'이 들어갑니다.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은 '도후도(One-time Assembly)' 공정개선을 위해 설계·생산 구성원분들과 협업했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Unit를 임시 가설 후 해체하여 용접·도장을 마친 뒤 다시 완성했는데, 도후도 방식을 도입하면서 한 번에 완성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생산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그때를 저는 지금도 "Unit업계의 생산혁명"이라 부릅니다.

'선보귀신'이라는 별명이 있으신데요, 유래가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여러 공장과 프로젝트를 경험하다 보니 붙은 별명이라 생각합니다. 다대1공장 시절부터 하이텍, 유니텍 등 신규 공장 건설에도 참여했고, 생산사원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친구처럼, 형님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함께 울고 웃으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보귀신'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25년이나 근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근면·성실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희생과 책임'을 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시는 프로젝트가 궁금해요.

현재는 특수선 프로젝트, 육·해상 암모니아, CCUS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사업 기획과 산학연 협력 연구 및 대외 업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바라본 '선보'는 어떤 회사인가요?

예전에는 회장님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조례 때는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고, 매년 양복·보약·옥장판·밥솥 같은 선물을 챙겨주셨죠. 결혼식 때는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 준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가서 "검은 형님들"이 단체로 온 듯한 든든한 장면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또 회장님 작업복 왼쪽 호주머니에는 항상 액셀로 출력된 Unit 납기 일정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호주머니로 향할 때면 설계·생산부서 모두 긴장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선보가 상장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사실, 그렇게 새로운 역사와 함께한다는 데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흔히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선보는 그야말로 "신이 공공 숨겨둔 직장, 보물 같은 회사"입니다.

선보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비전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힘으로도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비전을 세우고, 피터 팬 증후군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그냥 오래가는 회사가 아니라, 명문 100년 기업으로! Forever SB SUNBO.

선보Family

10년 동안 지켜온 안전과 신뢰, 그리고 함께 성장한 시간들 - 정성훈 반장

안전하게 쌓아온 10년,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10년 동안 단 한 번의 큰 사고 없이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보람됩니다. 배관 작업은 작은 실수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동료들과 서로 확인하고 챙겨주는 문화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우리 공장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함·안전함·체계"가 만들어주는 작업 환경

공장 자체가 무척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대2공장을 특히 좋아합니다. 설비와 동선이 잘 정리돼 있어 작업 효율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스마트라운지에서 짧은 휴식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도 있죠. 이런 좋은 작업 환경이 작업 품질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훈 반장
다대2공장 협력사 SUS.ENG

기억에 남는 현장

5~6년 전에 구평공장에서 진행했던 Regasification(재기화) 유닛 작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검사 기준이 까다롭고 공정 과정도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해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고 제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와 앞으로의 포부

다대2공장의 이경화 팀장님을 비롯해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선보에서 10년을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배관 분야에서 더 세밀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해지고 있어,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며 선보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SB선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보Family

환영합니다! 선보Family 신규입사자 소개



Sanjeev Kumar 전계장개발1팀

회사의 좋은 환경에서 제 지식을 활용하고, 더 나은 경험을 통해 가치를 더하고, 동시에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민현 사원 프로세스개발1팀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자세로 선보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제경혜 사원 영업설계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영 사원 품질1팀

품질관리의 큰 뜻을 품고 SB선보에 이바지하고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Claim 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조 책임 설계6팀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선보Famil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선임 설계6팀

안전제일, 시간 엄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홍 선임 설계3팀

선보Family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태 책임 설계7팀

솔선수범하여 선보Family에 모범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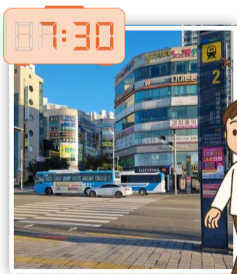
선보로그

선박의 '전기과 제어'를 책임지다 - 황원우 사원

우리 전계장 개발팀은 선박의 '전기과 제어'를 책임지는 팀입니다. 현재는 FGSS(Fuel Gas Supply System) 와 FSRU(Floating Storage & Regasification Unit)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해, 배 안에서 전기가 필요한 모든 장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연결하는 일이에요.

크게는 선박 전체의 전력 분배를 담당하는 배전반(Switchboard)부터, 작게는 Lighting, Telephone, Alarm, Communication 장비까지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장비의 전원 공급과 신호 제어 방식을 검토하고 배치합니다. 또한, 각 장비가 어디서 전원을 공급받고, 그 장비가 발생시키는 신호(압력, 온도, 알람 등)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할지까지 설계하죠. 쉽게 말해, "배 안의 모든 전기 흐름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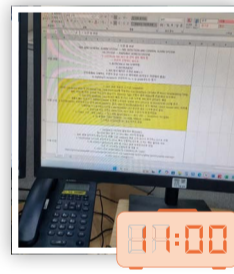
오전일과



"오늘은 운 좋은 출근길!"
항상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대대포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고 회사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운 좋게 한 정거장 만에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출근했어요. 아침마다 같은 노선을 타지만, 앉아가는 날은 기분이 조금 더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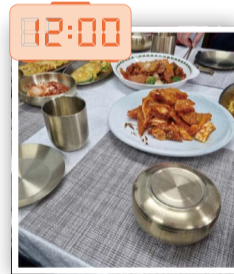


오늘은 일학습병행제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부서는 실무 위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이런 교육 시간을 통해 평소에 놓치기 쉬운 기본 개념이나 설계 철학을 다시 되짚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엑셀 시트로 정리합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엑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할 일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다 못한 일은 빨간 글씨, 완료한 일은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일의 흐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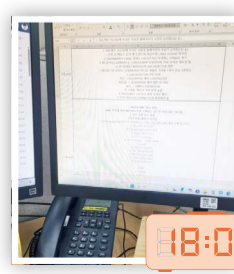
오후일과



오늘 점심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부회장님과 2025년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특식이 준비된 날이었어요.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행운의 2달러도 받았답니다!



선주로부터 기존의 SMOKE DETECTOR를 이동하기 어렵다는 Comment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비를 옮기는 대신 새로운 위치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 안전과 기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퇴근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아침에 체크했던 '해야 할 일 엑셀 시트'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일 확인해야 할 업무를 미리 메모하고, 오늘 끝내지 못한 일은 동일하게 표시해 두어 다음날 이어서 진행합니다. 하루 종일 집중했으니 이제 퇴근 준비 완료! 오늘은 집에 가서 소주 한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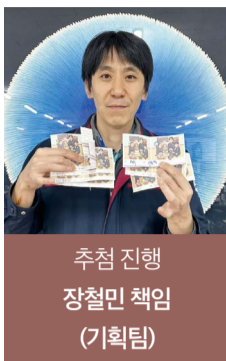
"어디서 출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EVENT 결과

추석맞이 틀린 그림 찾기 이벤트 결과

<SUNBO NEWS> 10월호 '추석맞이 틀린 그림 찾기' 이벤트에 59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등 치킨 교환권 : 재무인사팀 이동민 선임
- 2등 2등(햄버거세트 교환권) : EM팀 김민진 선임, 설계3팀 원윤정 사원
- 3등 3등(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플랜트 품질팀 박상계 책임, 플랜트 품질팀 김천기 책임, 설계4팀 김상운 책임, 프로세스개발2팀 오예린 선임, 전산팀 우지에 사원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다대1공장 박용기(11.2) 고중현(11.16) 반유선(11.22) 이종필(11.5) 김희태(11.16) 김수민(11.25) 권다정(11.9) 문해기(11.16) 강민구(11.26) 박성호(11.12) 박선영(11.18) 박주호(11.26) 정해찬(11.12) 신유철(11.18) 박주홍(11.26) 박상준(11.14) 정원진(11.18) 탄 루안(11.26) 이화진(11.15) 강영한(11.19) 김수환(11.28) 장호길(11.15) 소상섭(11.19)

다대2공장 박재용(11.02) 딘 상(11.16) 정기현(11.26) 박용진(11.11) 양정수(11.17) 타오싱(11.11) 제리(11.20)

구평공장 남정화(11.3) 김 술(11.14) 방영봉(11.25) 박상현(11.6) 이창주(11.21) 랑체타(11.27) 장세송(11.6) 반 람(11.23) R에이투함마드(11.14) 성기욱(11.24)

대불공장 김창영(11.02) 박승은(11.20) 람(11.26) 이진욱(11.11) 허미란(11.22) 후이관(11.26) 이현우(11.12) 이영호(11.24) 양병철(11.17) 최태림(11.25)

김해공장 하창원(11.03) 동(11.13) 정인길(11.25) 김남송(11.04) 김민정(11.18) 박재호(11.27) 이상희(11.08) 야 신(11.20) 권용관(11.12) 박정근(11.25)

영암공장 경충수(11.11) 권성진(11.15) 박수동(11.29)

EVENT

스포츠로 즐기는 2026! 퀴즈 이벤트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등 2026년에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SUNBO NEWS>는 이와 관련한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퀴즈 정답을 적어 다대1공장 총무팀에 제출해주세요.

- 1 2026년 FIFA 월드컵 개최지 세 국가는?
- 2 우리나라는 몇 회 연속 월드컵 진출일까요?
- 3 2026년 FIFA 월드컵 공인구 이름은?
- 4 이탈리아 밀라노와 크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몇 회 대회일까요?
- 5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을 적어주세요.
 월 일 ~ 월 일

부서: 성명: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다대1공장	유무성 상무	기술 영업 담당	2005.11.09(20주년)
	김광수 책임	재무인사팀	2010.11.29(15주년)
구평공장	손대석 팀장	보성ENG	2015.11.13(10주년)
	공대성 팀장	보성ENG	2015.11.13(10주년)
	반 폭 사원	보성ENG	2020.11.03(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수석, 이수지 사원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총무, 행사, HSE 김수환 선임, 배상준 선임
• 제작 미디어줌 (Tel. 051. 623. 1906)

입사기념일

다대1공장 강영한(11.01) 김나래(11.04) 우지에(11.20) 권다정(11.01) 유무성(11.09) 한지혜(11.20) 김대연(11.01) 윌 햄(11.09) 정원진(11.22) 레이마크(11.01) 최현진(11.11) 이경진(11.27) 이종필(11.01) 강병기(11.17) 홍봉걸(11.28) 이현수(11.01) 김재원(11.18) 김광수(11.29) 장봉수(11.01) 윤상득(11.18) 김광남(11.04) 박성우(11.20)

다대2공장 루 삭(11.23) 사 티(11.23) 전형주(11.26)

구평공장 방영봉(11.01) 오창배(11.13) 페 닌(11.23) 정민우(11.01) 손대석(11.14) 김길도(11.27) 반 폭(11.03) 김학중(11.15) 김대진(11.27) 장정현(11.05) 손정학(11.15) 석진환(11.27) 류시현(11.06) 이상훈(11.21) 염선근(11.27) 신용화(11.06) 조 니(11.21) 박희동(11.28) 공대성(11.13) 시위нат(11.23)

대불공장 김영목(11.04) 최태림(11.10) 한재영(11.19) 문화성(11.04) 송덕(11.12) 정민주(11.20) 아스타만(11.05) 김태경(11.13) 스리말(11.25) 강용길(11.06) 양병철(11.14) 조승현(11.25)

김해공장 권희정(11.01) 심용수(11.01) 김성화(11.04) 김민정(11.01) 아크담존(11.01) 안락균(11.14) 김진만(11.01) 자 람(11.01) 양(11.18) 김진화(11.01) 짐(11.01) 베라웃(11.23) 넷(11.01) 황(11.01) 암포른(11.23) 동(11.01) 퀴 룡(11.01) 왓차뉴(11.23) 룡(11.01) 타나곤(11.01) 포르위(11.23) 배승용(11.01) 휘(11.01) 산토스(11.30)

영암공장 우태자(11.01) 박상환(11.12) 박상부(11.14)